



"할머니, 또 오세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명숙 총리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

한명숙 국무총리 승가원 방문

총리 아닌 엄마로 아이들 '마음' 읽었어요

총리실 간부 2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

특별한 하루가 밝았다. 1월 13일,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에 여는 토요일과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원장스님과 선생님들은 바쁜 모양이다. 승가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선생님들은 바쁘게 1층과 2층 강당을 오간다. 10시 30분이 되자 승가원 마당으로 검은색 차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내렸다. 큰스님 할아버지가 손님을 맞으며 무척 반가워한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어른들은 알고 아이들은 모르는' 한명숙 국무총리의 승가원 방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근 정부의 '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마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총리는 "서울 인근의 장애아동시설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동안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승가원이 봉사 장소로 추천된 것이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시찰이나 방문이 아닌, '봉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국무총리'가 누군지 알기는 어려운 터. 이제부터 한 총리와 아이들과의 '얼굴 익히기 한판승'이다.

별다른 환영의식 없이 종범 스님과 간단한 차담을 가진 한 총리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승가원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장 동욱 스님의 시설 현황 브리핑에 이어 봉사활동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다' '스킨십을 많이 한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전달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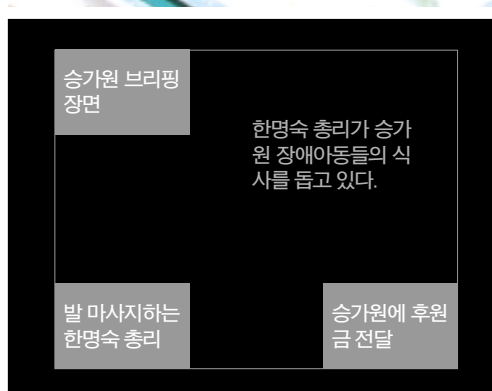
식사 돕는 법과 마사지 하는 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동안 봉사활동이라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한 총리지만, 모처럼 장애아동들을 만났다는 생각에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간다.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승가원을 방문한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장 김성진 비서실장, 유종상 기획차장, 박종구 정책차장 등 총리실 간부 20여

식사보조·마사지 등 열심 '언니'라 부르는 아이에게 '감기 조심하라' 당부하기도 한 달에 한 번 봉사 뜻 밝혀

명도 진지한 자세로 교육을 받았다. 방문단은 모두 10개조로 나누어져 식사보조와 책 읽어주기, 마사지, 학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교육 후 승가원 1층 장애아동 생활시설로 자리를 옮긴 한 총리는 별님실, 햇님실, 달님실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미영(10)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이 되라"고 격려하고, 한 총리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나영(16)이의 손을 꼭 잡으며 "감기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아이들이 누운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는 사이 '국무총리'는 어느새 '엄마'



승가원 브리핑 장면
 한명숙 총리가 승가원 장애아동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발 마사지를 하는 한명숙 총리
 승가원에 후원금 전달

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첫 대면의 긴장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편치는 않다. 자신과 함께 아이들의 밥을 습격(?)한 취재진과 수행원들 때문이다. "나 때문에 시끄럽게 돼서 미안해."

아이들의 점심시간인 11시가 되자 한 총리는 앞치마를 들었다. '청련반'에서 아이들 식사를 돕기 위해서다. 안나(13)는 한 총리의 도움으로 눈 깜짝할 새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밖에 나가 놀자'고 재근다. 부쩍 차가워진 바람 때문에 나들이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한 총리의 손을 잡고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안나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채민(16)이는 한 손으로 밥을 떠먹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연신 안경 쓴 자기의 눈을 가리킨다. 며칠 전,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 쌍꺼풀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이쁘지, 이쁘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예뻐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나이도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다.

태호(8)는 오히려 한 총리에게 '도움 주는 밥'을

일려준다. 어엿한 여덟 살이나 '아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식판에 남은 마지막 밥 한 톨까지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팔 대신 발로 숟가락질을 하고 그림도 그리는 태호의 꼼꼼한 성격에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자신의 '진소리'가 조금 미안했던 탓일까? 식사를 도와준 한 총리에게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노래도 불러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건넸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자련방'으로 자리를 옮겨 마사지 봉사가 이어졌다. 마음껏 휘둘러줄 수 없는 아이들이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봉사자들이 늘 마사지를 해 주고 있다. 마사지 크림을 털어내 익숙한 솜씨로 이슬이(17)의 발을 만져주는 한 총리 곁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예전엔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다"는 한 총리의 마사지 실력에 나영이(16) 순영이(12)도 차례로 다리를 내밀었다.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행복의 미소'가 마음으로 전해진다.

한 시간 동안의 자원봉사를 마무리한 한 총리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미소는 결코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라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 총리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승가원에 후원금을 전달한 한 총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념촬영 후 한 총리와 봉사자들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손을 흔드는 아이들. 아이들의 미소는 '총리'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들을 향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글=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온열복대 착용하세요. 건강지킴이 금강약돌사입니다. 다년간 건강 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 최첨단 소량만이 생산되는 북한 최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등과 같은 열침을 갖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타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천진성, 피부염, 복부지방 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임산부와 전이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님 불자님들께서도 온열복대 착용 후 저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열복대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전기열선온도	95-100℃	70℃미만
접촉부온도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유지	50℃미만
원적외선	광도(40%)에서 95%, 9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파장을 원소기(60%)를 포함하여 있다.	광도(40%)에서 방사량이 90%인 파장, 90%이하일 경우는 인체에 유익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물리온	30~40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30~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